



지난달 10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성악 부분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. 왼쪽부터 이라현(중흥초1), 박태호(살레시오초2), 임하운(광주교대부설초1), 한주호(백운초2), 윤하영(삼육초1).

예술꿈나무들의 내일을 향한 힘찬 날갯짓

사진=최현배·김진수 기자 jeans@

올해 70주년을 맞은 광주일보 호남예술제는 그동안 지역 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수 많은 예술 인재들의 등용문이 됐다. 올해 열린 예술제에서도 꿈나무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예술에 대한 꿈을 펼쳤다. 최근 경연이 끝난 합창·무용·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 참가한 예비 예술가들의 빛나는 순간을 화보에 담았다.



합창 부문에 참가한 살레시오초 이정연 외 39명이 무대에서 손으로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.

신지우(봉선중 3) 양의 현대무용 독무.



김하늬(송원초 2) 양의 가야금 병주.


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달 14일 열린 발레 클래식 부문에 참가한 송원초 박채원 외 16명이 아름다운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.



금상을 수상한 서시온(운리초 4) 양의 발레 클래식 독무.